

사랑에 빠진 여름

벤 맥그리비



전국에서 “학년이 끝났다”는 말이 울려 퍼질 때, 학생들은 신이 난다. 청소년들에게 여름은 뭔가 다른 무엇이 있다—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감사하게도 뷰포드 교회의 많은 청소년들은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뷰포드 청소년 그룹(BYG)의 여름을 성경공부, 친목, 섬김 그리고 성장으로 채우고자 했다.

이번 여름의 주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여행”이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 다니신 곳들을 따라가면서, 그 시간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어떻게 우리들을 돕는가를 보았다. 예를 들면, 시가와 같은 지역인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 보다 불우한 사회적 처지에 있는 여인과 얘기를 나누시고, 그녀에게 생명수를 주셨다. 돈을 바꾸는 자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으신 성전으로 따라 갔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시는 자리에도 갔다. 어느 여인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나인에도 갔고, 베다니에도 가서 오빠 나사로를 일으킨 마리아와 함께 울기도 하고 마르다와 함께 생각해 보기도 했다. 겿세마네, 골고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

이 여정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비인격적 존재로서가 아닌, 인격적 존재로서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사람에게 대한 애틍는 사랑, 죄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 죄인들에 대한 사랑 등 그분의 덕성들을 통해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보았다. 이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이전 보다 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기를 기도했다.

수요일 성경공부 외에도 다른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 어느 것도 생산적이지 않은 것이 없었고 어느 것도 우연이 된 것이 없었다! 아침 식사 모임은 단지 많은 십대들이 그저 함께 아침을 먹는 것처럼 보였을 지 모르지만, 서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과도 더 친하게 되는 자유로운 자리였다. 여름성경학교 동안에는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

을 제공했다. 특히 여름성경학교는 창의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성경을 생각해 보는 활동들을 하는 기회였다.

Lock-In과 같은 프로그램은 체력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오래도록 지속될 친목을 이루어 주었다. 올해는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야구경기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새벽 4시 30분에 교회에서 영화 “Cars”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영화를 보던 중 한참동안 Nerf 총싸움 놀이도 했다).

물론, 항상 해오고 있는 식스플렉 놀이공원에 가는 것도 빼먹지 않았다! 이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그들은 “더 무서운 것을 타자”는 그룹과 “그런 건 보기만 해도 울렁거린다”는 그룹으로 항상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이 활동이 중요한 것은 많은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지 않던 아이들끼리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라는 점! 롤러코스터들이 그런 중요한 득을 줄 수 있다면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는 것은 빠서는 안 될 것이다.

캠프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환상적인 한 주다. 올해 캠프는 정말 특별했다. 올해의 주제는 “진짜”였는데, 그 주제대로 많은 아이들이 더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와우! 캠프란 바로 이거다. 나는 이런 변화들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아이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향해 내린 진지한 결정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BYG On the Go 주간이 왔다. 전도 주간이다! 여름 피크닉에 커뮤니티를 초대하기 위해 1600 가정의 문을 두드렸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 ... 이 주 동안 BYG가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들의 여름은 항상 그렇듯이 늦여름 리트릿으로 마감했다. 리트릿은 큰 도전을 제시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는 곳들에서 계속하게 하셨다. 우리의 주제는 “뷰포드 투어”였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아이들은 예수님의 여행을 계속하도록 스스로 자신들의 여행을 계획했다!

은혜로운 여름이었다. BYG에게, 동참한 어른들에게, 그리고 BYG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멤버들에게, 정말 잘 해 준 인턴들 콜튼과 켄지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내년 여름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여름을 가질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것이다.